

“창업 지원 확대”... 중기부, 지역상권 살리기 속도

상권 추진 전략 발표...창업가 1만명·기업 1000곳 육성 2000억원 전용펀드 조성...농촌·인구 감소지역 지원도

정부가 지역 창업 지원을 확대해 선도 기업으로 성장시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로컬 창업을 통해 자생력 있는 지방 상권을 만들고자 기획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다.

최근 전국 상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핵심상권(123곳)의 64.23%는 소재지가 수도권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분포가 유사함에도 수도권(1억6000만명)의 점포당 월매출이 지방(4376만명)의 4배에 육박한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로컬 창업 기업이 구도심에 모여 활기를 되찾는 상권이 나타나고 있고, 한류의 영향으로 로컬

관광 수요가 커지면서 지방 상권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특색을 보유한 모두의 지역 상권을 구현하고자 상권의 점(창업)·선(성장)·면(확산)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전략을 수립했다.

중기부는 변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로컬 창업가 1만명을 발굴하고, 1000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90% 이상을 비수도권에서 선발해 지역 중심 창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발굴에 그치지 않고 창업 지원을 위해 선배 창업가와 투자자, 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멘토단을 운영하고, 지방 밀

착형 로컬창업타운도 2030년까지 17곳으로 늘린다.

디지털 기반 지원도 강화된다. 자연어 검색을 통해 상권 분석과 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함께, 매장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교육 프로그램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농촌과 인구 감소 지역 지원도 포함됐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육성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청년 서포터즈 100명을 운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금융권이 참여하는 1000억원 규모 특산물 구매 특례 보증을 신설해 지역 기반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관광·문화 자원을 활용한 상품

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돌봄·의료 등 사회 문제 해결형 로컬 기업 지원도 병행한다.

또 로컬 창업이라는 점이 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중기부는 로컬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과 해외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민간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해 최대 5억원의 매칭 용자와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성장 펀드를 통해 2030년까지 최대 2000억원 규모의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생산 설비가 없는 초기 기업에는 제조 바우처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억원의 마케팅·판로를 확

대한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올해 50곳의 로컬 기업 집적지를 지원하고, 2030년까지 누적 1000곳 조성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관광 상권은 2030년까지 17곳, 지역 특화 콘텐츠 기반으로 한 로컬 테마 상권은 5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주 한옥마을같이 지역의 미식·문화·즐거움 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공간 조성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백년시장’도 12곳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통신사 최적요금제 의무화 가계 통신비 절감 등 기대

정부가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대포폰 등 불법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통신사 최적요금제 추진 의무화와 대포폰 방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야가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개정안은 요금제 선택 지원과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대포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가 강화된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행위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행하지 않을 때 처분을 내렸는데, 앞으로는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이런 과정 없이 처분이 가능해진다. 또, 통신사는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쳐야 한다.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도 강화됐다. 통신사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운용해야 한다. 긴급히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봄 날들이 시즌 ‘모자 신상품’ 선보여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4층 텍스모자 매장서 본격적인 봄 날들이 철을 맞아 다양한 모자 신상품을 선보인다. 사진은 텍스모자 매장을 찾은 여성 고객이 봄 날들이용 모자를 고르고 있는 모습.

제주항공, 공항수속 디지털 전환한다

인천 ‘스마트패스’ 확대...출국 전 과정 논스톱 이용

제주항공이 공항 수속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편하며 이용 편의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면인식 출국 서비스 ‘스마트패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기존 출국장 중심으로 활용되던 서비스를 셀프 백드롭과 탑승 게이트까지 넓혀 인천 출발 국제선 이용객이 공항 전 과정에서 디지털 수속을 이용할 수 있

도록 했다.

스마트패스는 얼굴과 여권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출국 절차를 전면인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탑승객은 모바일 체크인 또는 공항 키오스크를 통해 수속을 진행하고, 수하물 위탁 역시 셀프 백드롭 기기에서 전면인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인천발 국제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항공기 출발 40분 전 탑승게이트와 출발

정보를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공항 내 이동 동선을 효율화하고 정시 출발을 지원한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주항공 L카운터는 스마트패스 전용 라인과 인접해 수속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국내선 서비스 개선도 병행된다. 독립 유공자와 제주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등 신분 확인 대상자도 최초 등록 이후에는 키오스크를 통해 모바일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속 가능 시간도 기존 출발 12시간 전에서 24시간 전으로 확대해 단체 및 사전 수속 수요에 대응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롯데마트·슈퍼, 수출 전용 K-라면 역출시 해외 인기 ‘농심 순라면’ 단독 선판매 돌입

해외여행지에서 만 볼 수 있었던 K-라면이 국내 시장에서 첫 선을 보인다.

롯데마트·슈퍼는 26일부터 미국·유럽·중동 등 해외 시장에서만 판매돼 온 수출 전용 제품인 ‘농심 순라면’



지향하는 MZ세대까지 폭 넓게 아우른다. 전략을 내세웠다.

해당 상품은 롯데마트·슈퍼 창립 행사 ‘메가톤큰’ 개막에 맞춰 단독 선판매를 시작하며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차별화

를 국내 최초로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순라면’은 ‘신라면’, ‘짜파게티’ 등 유명 제품과 함께 농심의 글로벌 판매 상위 5위권에 속하는 베스트셀러로, 국내 미출시 라면 가운데 판매 1위를 기록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순한 맛이 특징인 ‘순라면’은 채소와 버섯을 활용해 국물과 건더기 전반에 걸쳐 깔끔한 풍미를 구현했다.

또 이번 국내 출시 제품에는 견면을 적용해 칼로리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시각을 강화했다.

롯데마트·슈퍼는 매운 맛 중심의 라면 시장에서 자극 없는 담백한 맛으로 가족 먹거리 수요를 겨냥하는 한편, 비건 인증을 기반으로 가치소비

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단독 선판매 기념행사도 마련했다.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해당 상품을 포함한 봉지라면 전 품목에 대해 행사 카드 결제 시 2+1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다음달 8일까지 ‘순라면’을 2개 이상 구매 시 10% 할인을 제공한다.

이영주 롯데마트·슈퍼 조미대응식품팀 상품기획자는 “해외 시장에서 검증된 글로벌 베스트셀러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만큼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롯데마트·슈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차별화 상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개강식 축하 콘서트

일 자 | 2026년 3월 26일(목) 오후 6시

장 소 |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5층 대연회장 (구 라마다상무호텔)

일 정 | 오후 6:00 저녁식사(17층 파라뷰)
오후 7:00 개강 축하공연

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바리톤 김동규
학력 밀라노베르디 국립음악원
데뷔 1991 오페라 토스카
수상 1997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음악부문
1991년 베르디 국제 성악콩쿠르1위
경력 이탈리아 라스칼라극장 주역가수



바리톤 신흥규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졸업
슈베르트콩쿨 입상
다수 오페라 주역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홍보대사
현) 가천대학교 외래교수



테너 하세훈
한양대학교 성악과 학사 졸업
드레스덴 성악과 석사 졸업
말리아비니 국제 콩쿨 2등 및 청중상
현) 한양대학교 성악과 외래교수
현) 한세대학교 성악과 외래교수

